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으면 부처”

그들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설법을 듣고 거기에 알음알이를 일으킨다. 혹은 신통이나 상서로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의지하여 보리열반이 있다는 설법을 듣고 삼아승지경을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성문의 도(道)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을 성문불(聲聞佛)이라 한다.

성문은 아직 닦아야 할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수행의 힘을 빌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노력을 하거나 앉거나 관계없이, 또 굉장한 업을 지냈든 업을 지니지 않았든, 그 본바탕 성품은 돌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업식의 작용에 따라 변한 모습을 이룬다면 인연으로 쓸 뿐이다. 이것을 알면 내려놓으면 되는 데, 성문은 수행을 통해 업식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래 마음자리를 증득하여 얻은 힘을 통해 세월을 보내면, 그것이 바로 약이다. 그러나 그런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안에 독한 것이 드러나면 억지로 없애려고 든다.

다만 당장에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박 깨달으면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한 해도 닦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위 없는 도(無上道)'이며, 이것이 바로 진여불(眞如佛)이다.

불법의 바다[法海]에서 파도는 천차만별로 온갖 차별된 경계를 이루지만, 그 바탕은 한 번도 차별된 적이 없는 절대 평등의 대원경지(大圓鏡智)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일어나는 것만 두려워하면, 곧 도와는 멀어진다. 생각마다 상(相)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음(無爲)'이 곧 부처이다.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는 것이다. 본래 그 자리는 인과(因果)를 초월해서, '인'이라 할 것도 없고 '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홀연히 바람이 일어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시공이 생긴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원인을 짓고 그에 따른 과보를 받는 것을 반복하면서 생사에 출몰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닫고 우리에게 알기 쉽게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묘법이다. 묘한 법의 가르침은 다 드러나 있지만, 내가 몰라서 비밀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묘한 것일는지 몰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가지고 쓰고 있어 묘할 것도 없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불법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무구(無求)'와 '무착(無著)'을 배워야 한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이 곧 부처다.

찾고 구하고 머물고 집착하는 것이 사라지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12>



범어사 주지

천차만별 경계 보이는 파도 法海의 근본은 절대평등

팔만 사천 법문은 교화 방편

본래 일체의 법이 없다

구하고 머물고 집착하는 것

사라지면 여여부동한 모습

'하되 함이 없이' 집착 말라

묘법 몰랐을때 비밀 같으나

알고나면 묘할 것 없다

부처님 법신은 허공과 같아

구름만 일어났다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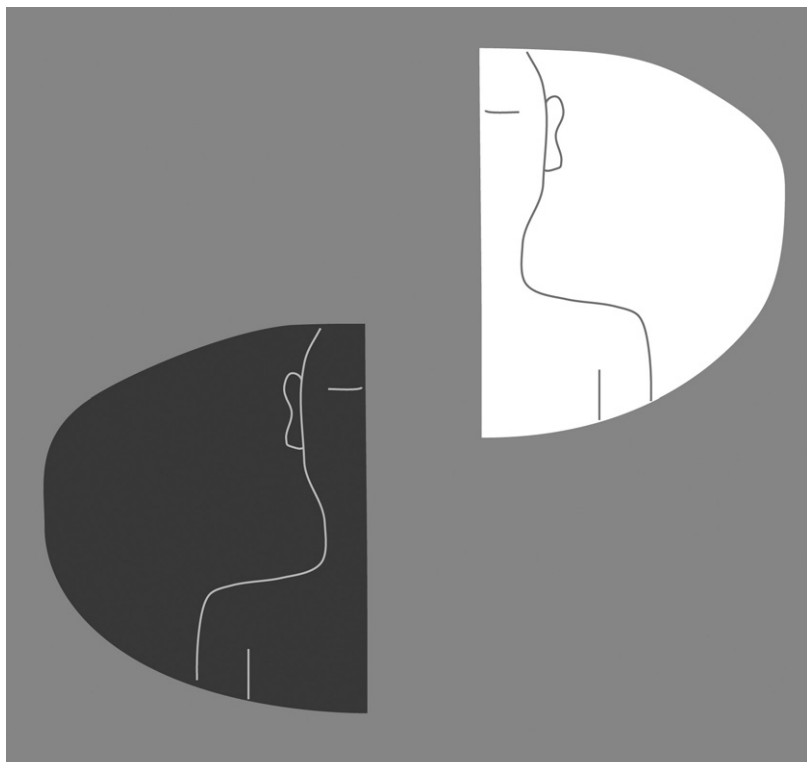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면, 늘 여여부동한 모습이 함께 한다. 구하지 말라는 말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소화하기도 힘든 말이다. 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면, 무기록(無記空)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되 한 바 없이 한다' 혹은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다'고 겨우 표현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허공이 곧 법신

일체 모든 그림자를 포용할 수 있는 허공을 법신이라고 한다. 법신이란 어떤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천차만별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망라하여 하나의 모습으로 안고 있는 실상을 법신이라고 한다.

팔만사천 법문은 팔만사천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편일 뿐, 본래 일체의 법이 없다.

본래는 한 법도 없지만, 미혹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장치 수단으로 팔만사천 법문이 나왔다.

여의는 것이 곧 법이요, 여의 줄 아는 이가 곧 부처다.

하루 종일 일으켰지만, 일으킨 적이 없다. 마치 구름이 뭉개뭉개 일어나지만 일으키는 실체를 찾아볼 수 없듯이, 법이란 따로 정해진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세속적의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키고 말고를 떠난 법이다.

일체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

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번뇌를 여의려고 자꾸 애를 쓴다. 본래 법이란 일체 번뇌를 만들기도 하고, 변화시키고 없애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것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하루 종일 번뇌를 일으켰지만, 한 번도 번뇌를 일으킨 적이 없는 것이다. 허공이 과거의 허공이나 현재의 허공이나 미래의 허공 할 것 없이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는 것과 같다. 변해진 것이 없는 가운데, 단지 구름이 일어났으니 사라졌느니 하는 이야기만 오고 갈 뿐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 위에 한 문도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한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하지, 말을 배우고 이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남다른 지식과 설득력을 지니면 세상 기준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만으로는 실상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이 허공에게 두루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허공 가운데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신 그대로가 허공이며 허공 그대로 법신임을 모른다.

성성적적(惺惺寂寂) 공적영지(空寂靈知)를 빌려 법신자리를 설명하곤 한다. 모양은 허공과 같지만 허공은 차고 더운 것을 모르는데, 법신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울 줄 안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반야심경)

빛나간 예언

예언은 기본적으로 미래전망이다. 미래는 글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일하기에, 사실 알아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목이 말라한다. 그런데 정녕 중요한 것을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맞았다거나 틀렸다가, 이런 평가에 대한 후일담이 없다. 그저 말해버릴 뿐, 그 뒤의 사후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를 중에서 종교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은 합리주의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대개 20세기 초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아마도 진화론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종교 고유의 영역이 확보되고 있지는 않은가. 죽음이 있기에 종교는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유향을 극복하고 무한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이 종교적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틀린 예언 중의 하나로 주문(呪文)의 운명에 대한 것도 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비합리적인 주문과 같은 것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미래는 합리주의의 시대라고 높이 노래 불렀었다. 그렇긴 했다. 합리주의의 시대가 왔다. 하지만 종교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문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주문 역시 종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 아니었던가 싶다.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신 뒤에, 그 “반야바라밀야말로 위대한 신주(神呪)이고 위대한 명주(明呪)이며 위없는 주문이고 어디에도 견줄 데가 없는 주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 자리가 어디인가? 가장 진실한 최고의 지혜를 설하는 곳이 아닌가.

주문의 정체

“반야바라밀야말로 위대한 신주이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볼 때, 주문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앞에서 말했던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가지 범주)은 곧 존재하지 않는다(空)”라고 하는 인식,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는 종래의 관점을 전복하는 것이 아닌가. 종래 우리는 많은 주문을 들어왔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은 주문이 아니라고 말이다. 진

실한 주문은 바로 반야바라밀 그 자체라고 말이다. 이러한 논리는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 뒤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없어도 되는 사족(蛇足)일까? 그렇게 보는 관점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분명히 반야바라밀이 곧 주문이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에 나오는 주문이 없어도 되는 것일까? 있어야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할까? 왜 “반야바라밀이 곧 위대한 신주”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또 “곧바로 주문을 설한다”라고 하셨던 것일까? 그 주문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를 말했다면 것일까?



그림 · 박구원

만약에 경전의 마지막 결론(結句)로 제시되어 있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하는 주문을, 경전의 제일 앞에 제시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되었다면 그 뒤에 이어질 말씀들은 결국 그 주문에 대한 해석이 되었으리라.

이는 결국 (반야심경)에는 반야바라밀의 정체성을 두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顯教)에 의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알아볼 수 없는 언어(密教)에 의해서이다.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하는 밀교의 입장을 더욱 중시하면서, (반야심경)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가 없어도 좋을 군더더기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क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